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새만금 로봇수소추진본부 가동

새만금청, 현대차그룹 9조원 규모 투자 지원 조직 출범
전북 대학신 TF 킷오프 회의와 연계... 로봇·AI·수소 등
대형 미래산업 프로젝트 투자 지원·관계기관 협력 추진

새만금개발청이 현대차그룹의 9조원 규모 새만금 투자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11일 현대차그룹의 대규모 미래산업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새만금 로봇수소추진본부(TF)'를 구성하고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본부는 이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새만금·전북 대학신 TF' 킷오프 회의와 연계해 마련된 것으로, 새만금에 추진되는 로봇 제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AI 수소시티 등 대형 미래산업 프로젝트의 투자 지원과 관계기관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

기 위한 전담 지원체제다. '새만금 로봇수소추진본부'는 새만금개발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기획조정관, 개발전략국장, 개발사업국장 등 9개 부서를 포함하는 총 9개 부서로 구성된다. 본부는 총괄 기능을 담당하는 '로봇수소추진단'을 중심으로 재정·계획·지원·제도개선·입지지원·기반시설·에너지·AI데이터센터·AI수소시티 등 분야별로 투자 지원과 정책 협력을 담당한다. 특히 로봇수소추진단은 추진본부의 총괄 부서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 조직으로 신설돼 기업 투자 지원과 정책 조정을 위한 윈스톱 소통 창구 역할을

하며 '투자 읍부조' 기능도 수행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추진본부 운영을 통해 기업 투자 지원과 산업 기반 조성 관계기관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로봇·AI·수소 산업이 융합된 미래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환경을 활용해 로봇 제조, AI 데이터센터, 수소에너지 산업이 결합된 미래형 산업도시 모델을 구축하고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 확대에도 나설 방침이다. 김의겸 청장은 "현대차그룹의 9조원 투자 프로젝트를 단순한 기업 투자를 넘어 대한민국 산업 구조를 로봇·AI·수소 중심으로 전환하는 상징적인 출발점"이라며 "새만금 로봇수소추진본부 운영과 로봇수소추진단 신설을 통해 기업 투자 지원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새만금을 글로벌 AI·수소 미래산업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서해안철도(군산~목포) 국경과제 반영을 위한 관계 시군 협의회가 11일 부안군청에서 열린 가운데, 권익현 부안군수(가운데), 심덕섭 고창군수, 김영민 군산시청 관한대행 등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부안군청 제공)

군산~목포 철도 건설 5개 시군 '의기투합'

〈군산시·부안군·고창군·영광군·함평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위해 공동대응 나서기로
지역 산업·관광 활성화·인구 유입 기반조성 적극 협력

서해안철도(군산~목포) 국경과제 반영을 위한 관계 시군 협의회가 11일 부안군청에서 열렸다. 이번 협의회에는 서해안철도가 경유하는 군산시·부안군·고창군·영광군·함평군 지자체장 및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서해안철도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서해안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반영과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협약서에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관련 상위계획 반영을 위한 공동 대응 △중앙정부 및 국회 대상 정책 건의 및 공동 방문 활동 △경제성 분석 제고를 위한 공동 연구 및 논리 개발 △주민주민 공감대 형성 및 홍보 활동 추진 △관련 학술포럼, 토론회, 정책 세미나 공동 개최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참석 지자체들은 서해안철도 건설이 서해안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교통망 완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으며, 지역 산업과 관광 활성화, 인구 유입 기반조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서해안철도(군산 새만금~목포)는 총 연장 약 110km, 총사업비 4조7,919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현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서는 추가 검토사업으로 분류돼 있으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신규 사업 반영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으로 관계 시군은 정례 간담회, 공동 용역, 정책 건의, 대국민 홍보 활동 등을 통해 서해안철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군산=김만호 기자·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김석진 기자

민주, "내달 8~10일 전북도지사 경선"

16~18일 결선투표... 김관영·안호영·이원택 '3파전'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전북 및 제주 광역단체장 경선을 오는 4월 8~10일 3일간 치르기로 했다. 결선투표는 같은 달 16~18일 치른다. 소병훈 민주당 중앙당 선관위원장은 10일 당사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 공관위는 지난 8일 회의를 통해 전북지사·제주지사 후보 공모자 전원을 경선에 불이기로 한 바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 자리를 두고 김관영 현 지사와 3선 안호영 의원, 초선 문대일 의원이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행정통합을 통해 초대 통합단체장 선거를 치르는 전남광주의 경우 오는 17~18일 이틀에 걸쳐 합동토론회를 개최한다. 후보가 총 8명에 달하는 만큼 17일 4명, 18일 4명씩 2개 조로 나눠 토론회를 진행한다. 소 위원장은 "(조를) 둘로 나누는데, 전남 2명 광주 2명씩 (4명을 묶어) 2개 조로 나누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는 27~29일 전남 서부·동

부와 광주 순서로 정책배심원 권역별 심층토론회를 진행한다. 지역 순서는 추첨했다. 6·3 지방선거 전남광주 통합단체장 선거의 경우 민주당 내에서 전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김영록·신정훈·이계호·주철현 후보가, 광주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강기정·민행배·이병훈·정준호 후보가 뛰고 있다. 소 위원장은 "A조와 B조를 나눠 토론하는 것을 보고 시민이 결정할 것인데, 광주 4명 전남 4명씩 2개 편성되면 균형이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조 편성 취지를 설명했다. 최근 당내 일부 후보들이 문제를 제기 중인 서울·경기지역 예비경선 합동토론회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한 번"이라면서도 "한 번은 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토론 횟수를 늘려도 최대 두 번이라는 설명이다. 소 위원장은 "(총 토론회 횟수는) 예비경선 때 한 번, 본경선 때 한 번, 결선 때 한 번, 총 세 번"이라며 "(일부 후보들이) 예비경선 한 번이 부족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래서 선관위에서 한 번 더 하는 것은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뉴스

전북자치도, 14일부터 37일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

전북특별자치도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으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봄철을 맞아 산불 예방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14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37일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이 기간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비상 대응체제로 운영하고, 산불 감시와 단속 활동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 인접 지역에서 발생하는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쓰레기 소각 행위가 주요 산불 원인으로 지목됨에 따라 감시원을 집중 배치하고 주말과 연휴 기간에는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일몰 전후와 건조특보 발표 시기에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산불 감시 인력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야간 산불 발생에 대비한 신속 대응조를 운영해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산불 발생 시에는 조동 진화 골드타임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진화 헬기와 지상 인력을 총동원해 피해 확산을 최소화한다.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예방 활동과 홍보도 강화한다. /이만호 기자

22일부터 6·3 지선 군수·군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전북선관위, '공직선거관리규칙' 따라

오는 22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군수 및 지역구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11일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등록신청 개시일이 공휴일이지만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년 6월4일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등록 시 관할 선관위에 기탁금으로 군수 선거는 200만원, 지역구군의원 선거는 40만원을 납부(후보자 기탁금의 20%해야 한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군수선거는 100만원, 지역구군의원선거는 20만원을(예비후보자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군수선거는 140만원, 지역구군의원 선거는 28만원을(예비후보자 기탁금의 70%)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등을 착용·소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만호 기자

열린의정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군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의회 고창군의회